

## 韓國語의 二重對格構文과 日本語의 二重對格構文의 問題

姜 龍熙

東京大學大學院 言語情報科學

3-8-1 Komaba, Meguro, Tokyo 153-0041, Japan

kang@tooyoo.l.u-tokyo.ac.jp

## Constructions of Double Accusative in Korean & Japanese

Yong hee Kang

Language and Information Science,  
Tokyo University

### 요약

韓國語의 格助詞와 日本語의 格助詞의 類似性과 相異性에 관한 研究는 많지만 格助詞와 單文의 統辭的 制約에 관한 研究는 미비하다. 본 研究에서는 二重對格構文의 觀點에서 兩國 言語의 統辭的 相異點과 分布의 差異를 明白히 밝히며, 日本의 韓日 機械翻譯 시스템에서의 處理와 誤譯의 處理를 考察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1 序論

韓國語의 對格 格助詞인 [을,를]이 包含되어 있는 文章을 日本語로 翻譯할 때에는 日本語에 대응되는 格助詞, 혹은 省略하는 등의 方法을 통해, 간단히 處理가 可能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運營體系가 單純한 構造와 複雜한 構造를 겸하고 있어 自然語 處理에 문제점이 있다.(이하 [를]을 대표로 삼음)

日本語의 格助詞의 체계에 對應되는 格助詞는 [を][に][が][と][へ]등이며, 그 共起情報도 記述하기 쉬운 體系이다.

日本의 高電社의 韓日 機械翻譯 시스템을 간단한 例文으로 테스트 해보면, [를]에 대한 翻譯語로 [を][に]가 設定된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

私は學校で(\*から)友人に會った.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

\*彼は彼の父に似た.

(彼は彼のお父さんに似ている)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

\*彼は謝罪を好む (cf.彼はリングが好きだ)

그는 과일을 싫어한다

??彼は果物を嫌う

(cf.彼は果物が好きではない.)

HITACHI의 機械翻譯 시스템에서는 [を][に][가][と]를 設定하고 있으며, 可能的 표현과 感情의 표현,그리고 祈願 표현에는 共起情報를 통해 [가]를 택하고 있으며, [と]에는 [일킨다]를 設定하고 있다. 아울러 [に]에는 [만나다],[답다][타다][따르다]등이 共起情報로 記載되어 있다. 또한 [를]이 文章中에 使用되는 範圍는 格助詞 이외에도 副詞句 혹은 強調등의 役割도 있다.

김민수[1](1971),홍사만[2](1995)의 연구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a제트기가 빨리를 간다.

b약을 먹어를 보다.

c춤지를 앓다.

그러나 日本의 機械翻譯 시스템중에 이와 같은 형태소 [를]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對應되는 處理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아울러 單文과 複文의 格助詞 運營體系가 다르다는 事實을 인식하지 못한 것도 알 수 있다. 참고로 二重對格構文을 使用하여 翻譯率을 確認해본 結果, 日本의 韓日 機械翻譯 시스템의 誤譯率은 HITACHI와 高電社 모두가

100%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複文의 處理와 格助詞 처리를 單純化 한데 그 原因이 있으며, 또한 韓國語는 單文에서 二重對格의 表現이 可能하나, 日本語에서는 二重對格構文은 一般的으로 非文으로 認定하고 있는 言語學的 知識이 反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韓) 나는 방을 청소를 한다.  
cf:1)나는 방의 청소를 한다.  
cf2)나는 방청소를 한다.

日) 私は部屋の掃除をする。  
(나는 방의 청소를 한다.)  
日)私は部屋を掃除する。  
(나는 방을 청소한다.)  
\*日)私は部屋を掃除をする。  
(나는 방을 청소를 한다)

膠着語의 特性과 類似한 統辭的 規則이 通用되는 兩國의 言語가, 二重對格構文에 있어서는 顯著한 相異點과 統辭構造의 差異를 보인다. 先行研究에서는 LIGHT VERB[3][4]의 觀點과 格助詞의 差異[2],[6]에서 오는 問題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單獨形의 對照研究는 있지만 二重對格構文에 관해서는 韓國語[5]에 편중되어 있으며 日本語의 二重對格構文에 대해서는 言及조차 하지 않는 論文이 많다.

그러나 修飾構造로 日本語의 二重對格構文을 敘述한 Sells[7](1985)의 研究는 注目할 가치가 있다.

太郎が花子の論文を厳しく批判をしました。

nom gen paper acc severely criticism acc do-past

\*太郎が花子の論文を厳しい批判をしました。

nom gen paper acc severe criticism acc do-past

\*太郎が花子の論文を(\*その)批判をしました。

top gen paper acc (\*that) criticism acc do-past

筆者가 兩言語의 코퍼스를 使用해 分析한 結果에서는 兩言語의 二重對格構文의 類型과 文型이 確然한 差異를 보인다.

코퍼스로써 주로 新聞등을 택한 理由

- 1> 大量의 데이터를 短時間에 얻을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 2> 편집 과정을 통해 嚴選된 文章과 豐富한 語彙가 使用된다는 利點이 있다.
- 3> 出典이 大衆매체라는 利點이 있다
- 4> 文型이 偏重되는 短點이 있지만 文型은 다른 코퍼스와의 效用으로 해결가능하다.

## 2 本論

### 2.1. 二重對格構文의 分布

二重對格構文이 韓國語의 統辭 構造上 非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檢출된 구문은 貧弱한 숫자이며, 非文으로 認定되는 日本語의 二重對格構文이 對等한 比率로 出現한다는 事實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본 研究에서는 出現하는 日本語의 二重對格構文이 非文임을 前提로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具體的 論議는 言及하지 않기로 한다. 코퍼스로 부터 單文의 二重對格構文을 檢出하여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 韓國語의 二重對格構文

1>漢字語+하다(省略形 包含)	15件
2>他動詞	7件
태우다,넘다,앞두다,만들다,세우다,내놓다,줍다	
3>複合動詞	0件
4>數量詞	11件
5>使役文	0件
合計	25

#### 日本語의 二重對格構文

1>漢語+する (できる포함)	16件
2>他動詞	7件
(預ける,目指す,なくす,買う,残す,図る,加える)	
3>複合動詞	2件
(見つめ直す、写し取る)	
4>數量詞	7件
5>使役文	1件
合計	33

### 표1. 調査對象의 코퍼스데이터

韓國語 코퍼스 데이터		日本語 코퍼스 데이터	
東亞日報 社說 1991-1993	約 6메가	EDR코퍼스사전	約 20메가
朝鮮日報 1993年	約 30메가	日本經濟新聞 1994年	約 170메가
脚本, 小説	約 2메가	岩波國語辭典	約 7메가

- EDR日本語CORPUS辞書(約20MG) 兎見4件
- 岩波国語辞典(約7MG) 兎見0件
- 日本經濟新聞CD-ROM(約170MG) 兎見28件;  
檢索件수가 増加될 可能性이 있다.

위의 結果에서 日本語의 코퍼스에서 비록 非文이라는 것을 前提로 삼아도 二重対格構文이 存在한다는 事實과 그 範圍와 動詞의 種類도 多樣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先行研究의 Nitta[8](1993)와 Shibatani[9](1978)에서는 使役構文에서 二重対格構文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코퍼스를 폭 넓게 使用하지 않고 考察한 結果라고 判斷된다.

Nitta:人工衛生を地球の回りを回らせる

Shibatani: 君に恩になった連中が子供さんを必ず立派に大学を卒業させる

아울러 위와 같이 使用된 코퍼스가 방대한 量임에도 불구하고, 檢索된 結果의 數가 予想外로 적었던 理由를 推論하면 다음과 같다

1>二重対格構文의 稀少성과 文脈의 指示機能을 念頭할 必要가 있다

2>韓國語의 構文構造上, 格助詞의 代置가 可能한 構文에서는 代置形을 使用했을 것이다

3>助詞의 省略이 可能한 環境에서 [를] 省略했을 것이다.

4>報道文이 中心인 新聞의 構文 性格上, 명확한 意味伝達을 하기 위해 重対格構文이 制約을 받았을 可能性이 있다.

## 2.2. 二重対格構文의 變異形

先行研究의 姜[10],[11](1997,1998)에서는 二重対格構文의 變異形의 문제를 다음의 例文을 통해 言及하고 있다.

그는 꽃을 사진을 찍고 있다.

\*彼は花を写真を撮っている

→彼は花を写真に撮っている。

→彼は花の写真を撮っている。

위의 例文에 追加해서 說明을 하면 單文에서 形態素 [を]가 使用可能한 頻度는 1회에 限하며, 그 制約은 義務的이며 屬格,与格의 格助詞로 格助詞를 變更하든가 格助詞를 省略하는 등의 文型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kageyama[12](1993)는 抽象的 編入(Abstract Incorporation)의 概念을 使用해

日本語의 「二重ヲ格」문의 非文性을 說明하고 있다.

百貨店が航空便で韓国から松茸の輸入をする。

\*百貨店が航空便で韓国から松茸を輸入をする

## 2.3. 構文별 處理

### 2.3.1. 數量詞 構文

韓國語에는 數量詞에 格助詞가 붙을 수 있으며 二重対格構文중에도 그 比重이 크다.

그러나 日本語에서는 數量詞 뒤에는 普遍的으로 格助詞[を]를 붙일 수 없다.

「日本語には数両や程度表示語が副詞的に使用される場合、その形が体言であっても叙述語とは格関係を成すことができない。それに従って格表示も連結されない制約がある。」

鈴木重幸[13](1972); 虚格(zero格)

(일본어에는 수량, 정도 표시어가 부사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격표시가 붙지 않는 제약이 있다.)

\*ビールを三本を飲みました。

→ ビールを三本~~を~~飲みました。

\*10キロを走りました。

→ 10キロ~~を~~走りました。

\*10時間を走りました。

→ 10時間~~を~~走りました。

\*日本語を10年間を勉強しました。

→ 日本語を10年間~~を~~勉強しました。

\*私は日本に今まで3度を来ました。

→ 私は日本に今まで3度~~を~~来ました。

특히 二重対格構文중에 數量詞 構文은 다른 構文에서 制約條件인 語順의 再配置가 可能하다.

다음은 이광호[14](1988)의 例이다.

철수가 영희를 머리를 때렸다. :

\*철수가 머리를 영희를 때렸다.

아저씨가 집을 10채를 팔았다. :

아저씨가 10채를 집을 팔았다.

그러므로 數量詞 構文에는 格助詞 [를]이 省略處理하여야 하고 語順再配置를 念頭에 둔 語順整列處理를 하여야 한다.

맥주를 10병을 마셨다.

1. ビールを10本、飲みました。

10병을 맥주를 마셨다.

2. \*10本、ビールを飲みました。

3. 10本のビールを飲みました。

2.3.2. 全体-部分 構文

二重対格構文중에 [數量詞 構文]과 [漢字語+ [를]+ 하다]를 除外하면 남는 構文은 一般動詞중에 對象의 格이 全体와 部分이 되는 文型이다.

철수를 머리를 때리다.  
철수를 다리를 걸다.  
시계를 태엽을 감다

이를 處理하기 위해서는 意味마커가 全体와 部分 關係를 糾明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철수      를      머리      를      때리다.  
Hum    Case 1    Head    Case2    V1  
Hum (whole) => Head(part)  
Case1 : を-> Case1 : の ;  
Case2 : を-> Case2 : を

\*太郎を頭を打った → 太郎の頭を打った

2.3.3. 受惠 構文

韓國語에서는 受惠者와 受惠對象物을 形態素 [를]을 使用하여 二重對格構文을 形成할 수 있지만 日本語에서는 一般的으로 受惠對象者는 [を]가 아닌 [に]로 나타난다.

아이를 밥을 먹이다.  
\*子供をご飯を食べさせる  
→ 子供にご飯を食べさせる。

先行研究에서는 위와 같은 例文을 볼 수있으며 그에 대한 處理도 受惠者의 對格助詞를 與格助詞로 바꾸면 簡單히 處理된다. 그러나 코퍼스에서 위와 같은 例文은 檢索할 수 없었다. 原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먹다] (食べる、飲む) 라는 動詞가 一般化된 動詞이지만 小說등을 통해 調査해보면 [밥을 먹다] (ご飯を食べる) 라는 文型보다 [나이를 먹다] (年をとる) 혹은 [겉을 먹다] (佈がる) 등의 例文을 発見하게 되는 경우와 흡사하다.

2.3.4. 漢字語 +[를]+ 하다

檢出된 例文중에서 가장 頻度가 높았으며 發話의 사용빈도를 考慮할 때, 높은 發生率이 예상되는 文型이다. 대부분의 機械翻譯 시스템이 [漢字語+하다]와 [漢字語+格助詞]를 同時에 處理하는 方式을 採択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다]動詞가 獨立된 動詞로 取扱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處理에는 獨立되고 劃一적인 處理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二重對格構文의 패턴중에 [數量詞 構文]과 [漢字語+[를]+하다]構文이 한 文章안에 存在할 可能性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檢出된 데이터에는 存在하지 않았다. 그러나 萬一의 경우에 對比해 다음과 같은 文章을 만들어 보았다.

방을 청소를 삼일을 안했다.  
삼일을 방을 청소를 하지 않았다.

數量詞의 뒤에 붙는 形態素, [를]에 關한 處理는 2.3.1에서 明記한 것처럼 형태소 [를]을 省略하면, 對象에 붙는 [를]과 漢字語+[를]의 處理로 그 範圍가 좁혀진다. [방을 청소를 하다]를 日本語로 翻譯할 경우 動詞를 [하다]와 [청소하다]로 設定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例文을 假定하면 問題는 더욱 複雜해 진다. [나는 내일이면 방을 청소를 할 수 있다.]와 같은 경우에는 可能形의 文章이므로 序論에서 明記한 [을]가 아닌 [가]를 선택해야만 하며, 文型도 안정된 屬格形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는 내일이면 방을 청소를 할 수 있다.  
→ 私は明日なら部屋の掃除ができる。  
나는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 \*私は部屋のきれいに掃除をする  
→ 私は部屋をきれいに掃除する

構文의 [對象(방)+[를]]과 [漢字語(청소)+[를]하다]의 사이에 副詞(깨끗하게)등이 插入될 경우를 考慮해서 動詞構文의 處理를 提案한다.

2.3.5 認識格 構文

韓國語의 二重對格構文에서 意味資質이 複數의 形態로 나타나는 構文이 있다. 具體적으로는 資格格 혹은 道具格 材料格등의 構文의 構造를 形成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만들다],[삼다]가 그 例이다.

그는 나무를 의자를 만들었다.  
→ 彼は木で椅子を作った。  
정부는 서울시를 독립국을 만들려고 한다.  
→ 政府はソウル市を独立国にしようとする。  
그는 학교 후배를 아내를 삼았다.  
→ 彼は学校の後輩を妻(として/に)迎えた。  
그는 그녀의 행동을 문제를 삼았다.

→ 彼は彼女の行動を問題にした。

格資質 附与의 문제는 先行연구등에서 複數의 格附与가 可能하며 深層格[15]과 認識格[16]을 区分하는 등의 研究方向이 摸索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認識格을 根拠로 삼고 自然語 處理의 문제를 考慮하고자 한다.

具體的인 選別方法으로 複數의 格資質을 認定하고 順次的으로 格資質의 構文을 形成하며 意味 傳達의 與否를 定하는 方法이다.

a. 나무를 의자를 만든다.( 재료 => 결과)

Case 1 : 를 -> で ; Case 2 : 를 -> を  
→ ~ [で] ~ [을] V1

b. 서울시를 독립국을 만든다.(대상 => 결과)

Case 1 : 를 -> を ; Case 2 : 를 -> に  
→ ~ [을] ~ [에] V1

c. 후배를 아내를 삼다.( 대상(HUM) => 결과)

Case 1 : 를 -> を ; Case 2 : 를 -> としてor  
Case 2 : 를 -> に  
→ ~ [을] ~ [として/에] V1

d. 그녀의 행동을 문제를 삼다.(대상(Obj)=>결과)

Case 1 : 를 -> を ; Case 2 : 를 -> に  
→ ~ [을] ~ [에] V1

例文 a.와 b.는 같은 [만들다]와 [삼다]의 構文은 意味概念의 카테고리에 의한 分析이 可能하지 않으면 그 結果는 誤訳이 될 수 밖에 없다

## 2.4. 問題点

二重對格의 處理에는 必須的으로 意味마커 및 意味카테고리가 形成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본 研究에서는 單文,複文의 區別 및 意味 카테고리의 關係는 皮상적인 條件으로 設定하고 論考를 展開했다. 同音異義語가 많은 韓國語의 環境을 前提로 할 경우에는 그 弁別基準과 그에 따른 分類作業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具體的인 意味關係의 條件과 客觀的인 資料를 보다 充실히 補完할 必要가 있다.

## 3. 結論

韓國語와 日本語의 二重對格構文을 처리하는 데는 語順 및 文型에 따라 제각기 다른 處理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筆者는 코퍼스를 사용하여 日本語의 二重對格構文의 樣相을 把握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機械翻譯 시스템 處理의 模들을 적어 보았다.

1> 數量詞 構文은 日本語에서는 對格助詞 [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韓國語의 數量詞 뒤의 [를]은 自動的으로 排除하며 語順再配置의 文型에서는 屬格形인 [의]로 바꾼다.

2> 全体-部分 構文에서는 意味마커의 關係로 前項의 [을]을 [의]로 바꾼다.

3> 受惠 構文은 前項의 對格助詞[을]與格助詞 [에]로 處理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조언을 해주신 Fukui Rei, Ogoshi Naoki, Koda Kaoru 교수님의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지도를 해주신 HITACHI의 Tanaka氏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1]김민수, 국어 문법론, 一潮閣, pp101-107, 1971
- [2]홍사만, 한·일어 대조어학/논고, 답출판사, pp.89-128, 1995
- [3]Ahn heedon *On Lig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of Wisconsin Japanese/korean Linguistic ,221-237, 1990
- [4]Park Kabyong, *Ligh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 태학사, pp.64-223 1992
- [5]우형식, 국어 타동구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pp.63-210, 1996
- [6]서정수,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pp.594-604, 1994
- [7]Sells, P., *More on Light Verbs and Theta-Marking*, Stanford Univresity, p25, 1989
- [8]仁田義雄, 「日本語の格をめぐって」, 日本の格をめぐって, くろしお出版, pp.1-37, 1993
- [9]柴谷方良, 「日本語の分析」, 大修館書店, pp.332-370, 1978
- [10]강용희, 일본의 한일 기계 번역 시스템에 있어서의 오역과 그 언어환경, 제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pp.303-310, 1997
- [11]姜龍熙, 「日本語と韓國語との言語の相違點と機械翻譯における問題點」, AAMT Vol No.22 April, pp.28-32, 1998,
- [12]影山太郎, 「文法語形成」, ひつじ書房, pp.255-321, 1993
- [13]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店, pp.217-219, 1972
- [14]李玟鎬, 國語 格助詞 [을/를]의 研究, 國語學會, pp.166-167, 1988
- [15]Fillmore, C.J., *The Case for Cas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Holt, Rinehart & Winston, pp.1-88, 1968
- [16]山梨正明, 「格の複合スキーマモデル」, 日本の格をめぐって, くろしお出版, pp.39-65, 1993

参考資料1>韓国語 코퍼스에서 検出된 二重対格構文

- k1. 보잉은 승객을 6백~8백명을 태울 수 있는 슈퍼절보기...
- k2. 울타리나 다리같은 장애물에는 첫색을 야드료를 칠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 k3. 작년 9월7일 수업시간에 카드놀이를 하던 학생을 6명을 적발...
- k4. 몇달을 법석을 떨면서 내린 것이 겨우 1~2%선이다.
- k5.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간을 연장.오는 10월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k6. 평화를 침공을 했을 경우인데...
- k7. 일본에서 산성도(산성도)를 측정하는 PH분석기기 시장을 6월안팎을 점령하고있다.
- k8. 1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 k9. 추곡 구분매입제의 도입을 율화반기를 앞두고 ...
- k10. 기사지격증(소지자)을 1~2명을 고용해야 하는 군 단위 대리점의 경우...
- k11.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
- k12. 우리도 오히려 농산물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면서 ...
- k13. 3천3백97억원어치를 가져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 k14.부산항을 통해 들어왔으나 기준치를 1백32배를 넘는 치오파네이트미질이 검출돼 ...
- k15. 서유럽 주둔 미군을 약10만명을 안전하게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k16. 비서직과 소프트웨어직 여성 전문인력을 1백2명을 모집한 데 이어...
- k17. 세계주에 대해 생산량의 1백분의 5 이상을 리필용품을 내놓도록 권장하고 있다.
- k18. 금진호의원이 파수원을 포함한 농지를 4만2천3백명을 소유해 1위였다.
- k19.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한 다음 가솔린가격을 평균요금을 10배 인상하는등...
- k20. 몇에 퇴직제한 연령(만 61세)을 10년을 앞둔 공직자가...
- k21. 반덤핑 제도는 미국측이 자신들의 수정제의를 대부분을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가...
- k22. 그 사람이 살맛을 판단을 해서 사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격명령권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제5 공화국(2)광주는 말한다>
- k23. 물론 아무리 지방자치라도 서울시를 독립국을 만들려는 생각이 아닌이상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동아일보<91년6월30일>
- k24.각본: 숙모; 그 사람들이 버리구간 쓰레기만 거지말 좀 보태서 우리 뒷산만큼 쌓였을거야.. 국민학교 애들이 개학하구 학교와실랑은 몇 날 몇 일을 쓰레기를 줍느라구 애를 먹었지..
- k25.소설:사용자 5:"모든 걸 법대로 하자면 온갖에서 돌아가는 기계를 대부분을 직급 세워야 됩니다..."

参考資料2> 日本語의 二重対格構文

- j1.日本経済新聞 1994.12.25 :父親의 조지· Erickson의 許可를 取って壞れたサウナで描写することにになり、タオル姿をデッサンをしたらベツツイが「タオルが無いほうがいいわね」。
- j2.日経12.24 :債務保証や新たな第三セクター設立のために必要な 新法などを制定などをしたうえで、来年秋までにこれらの支援策

- を実施する計画だ。
- j3.日経12.22 :併せて、留学生向け住宅を供給するため、建設費や家賃を補助をする特定目的借上公共賃貸住宅制度などを活用する方針を打ち出した。
- j4.日経12.10 : 穂高駅通りでは商業施設のライトアップや、ウィンドーショッピングができるような照明を工夫をする。
- j5.日経12.06 :このため石川、富山県向けに消費者モニターを募集するパンフレットを配布したほか、業界紙に代理店を募集の広告を掲載した。
- j6.日経12.03 : 奈良県の南都銀行は四十万円型の貯蓄預金の引き出しについて、これまで一カ月に引き出し回数が五回を超えると手数料をとっていたのを制限をなくした。
- j7.日経10.15 :定員六十人の船を建造費を二億円と仮定すると、一日九往復、片道乗員十人が採算ラインになると試算している。
- j8.日経11.23 : 日本に生息する生物を保護し生息環境を維持するための「生物多様性国家戦略」を来年中に策定することが二十二日、関係省庁連絡会議で決まった。
- j9.日経11.07 :「なぜ、韓国の三星電子は強くなったのか」などと工場関係者を質問攻めにし、佐賀県の宿泊先の旅館の土産物売り場ではカメラ片手に試食しながら菓子類を数点を買った。
- j10.日経11.04 :有機農業に取り組み一家のひと夏を追いながら、家族や農業を原点を見つめ直す。
- j11.日経10.28 :会議では、まず各都市の代表がビデオやスライドを使って、「古い工場群を外観を残しながらホテルやアパートとして再生」(フィンランドのタンペレ)、
- j12.日経10.20 : 赤ちゃん本舗はベビー・子供服やがん具をメーカー希望小売価格の三、四割引きで販売、国内で現金間屋を約七十店を展開するまでに急成長してきた。
- j13.日経10.18 :十万円を一年間を預けたとしても、金利格差の〇・〇五%はわずかに五十円の違いに過ぎない。
- j14.日経10.09 :当時の兵士を一人一人顔を写し取ったらしい。
- j15.日経10.04 :那覇一名古屋線を一日本便を一日二便に、名古屋一山形線を一日一便を週四便の隔日運航にそれぞれ切り替えるという計画で、いずれも認可を受けて十一月一日から実施する。
- j16.日経09.25 :橋本通産相は「(提言は)基本的に受け入れられる」と支持の姿勢を表明をした。
- j17.日経09.10 :すでに東北通産局へ増床計画を申請をしており、認められれば東北で最大級のSCになる。
- j18.日経09.07 :関連会社の日清インターナショナル(同、峰村正会長)を通じて、当面はバスケットを年間千トンを入力する考え。
- j19.日経09.08 :同審議会に諮問し、群馬県の公共交通機関の在り方や輸送サービスを向上を図るための方法などを検討する。
- j20.日経08.29 :金正日書記と年齢、体質が似た人に健康食品やし好品を与え、健康との関係を分析をしているという。
- j21.日経08.12 :郵政省は今回、この定額部分の一律一六・六%引き上げと、重量などに応じて二国間協議で個別に料金を上乗せを要求できる制度の新設を求めるとしている。
- j22.日経08.03 :初年度六千万円を売上高を目指す。
- j23.日経08.01:例えば、関東地区のFM局、J-WAVE(東京・港)は昨年秋から自社の番組をそのまま衛星ラジオ局に供給、衛星ラジオ局はほぼすべての番組を同時再放送をしている。
- j24.日経07.19 :中央通りの「にぎわいの物語」をキーワードとして、町を演出をするという内容。
- j25.日経07.16 :工場の面積は約一万二千方メートルで、MDFを使ったテレビ台やカラーボックスなどの組み立て家具を月間五万個を生産する
- j26.EDR:朝日新聞870922:盆正月もなく働き、少ない給料からコツコツと貯蓄に励み、何とか2人の子供を大学を卒業させることができた。